



급식 시간 오케스트라

월평초 5-1 최규은

급식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둘씩 시작되는 음악들
깨작깨작 딱딱 편식하는 친구의 젓가락 지휘에 맞춰
음냐음냐 잘 먹는 친구의 우렁찬 고기 먹는 소리
“이제 내가 반주를 깔아야지!”
공주병 걸린 여학생 친구 물먹던 컵을 새끼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건반을 친다.
이제는! 후루후루룩 국물 좋아하는 친구의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
이제 모든 음악은 다 모였는데
뭐 하나가 모자라다. 아! 우리의 웃음소리
하하 호호 우하하!!
그래! 이거지! 편식하는 지휘자 친구도 이제 만족을 한다.
우리의 재미있는 소리가 담긴 이 오케스트라는 바로
급식 시간 오케스트라!